

목어

한국의 수학 교육

한국 교육의 파탄은 주로 수학 교육 때문이다. 유별나게 계층성, 단계성을 중시하는 수학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량 배출한다.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은 수학의 본질을 왜곡한다.



2000년 9월 미국 교육부는 다음 30년을 위한 수학과 과학 발전 체계를 말한다'는 목적으로 작성한 'Before it'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를 발표한다. 60년대 초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경쟁에서 소련에 패배했을 때 수학교육에 대해 대대적인 재검토를 한 바 있다.

서구문명의 원천인 희랍문명의 기본이 수학에 있었다. 산업혁명을 뒷받침한 것은 뉴턴, 라이프니츠의 미적분학의 발명이며, 그것이 과학기술 혁명의 원동력이었다. 특히 정보화 혁명은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과학이다.

수학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격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를 길러준다. 또한 세상이 복잡해지수록 국민의 지식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오직 수학교육의 강화와 일반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서구에는 전통적으로 이성을 중시하여 수학을 학문의 기초로 여겨왔고, 지식으로서의 수학보다는 창조성과 합리성 함양에 힘을 기울여 왔다. 한국은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해 왔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과거시험을 위한 암기 중심의 것이었다. 지금도 수학 교육은 명문대학 입학에 위한 수단이며 창조성과 관련해서는 생각하는 일조차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다. '수학은 입시에 앞서 국력이다'라는 인식은 없는 것이다. 우리도 너무 늦기 전에 수학 교육의 재검토가 절실하다.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정화운동 모순 해소 '교육불사' 추진

'오대산 수도원' 과 탄허스님

일제의 식민지불교의 잔재 청산과 한국불교의 전통회복이라는 명분을 갖고 출발한 불교정화는 그 추진과정에서 반불교적인 행태의 노정 공권력의 개입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정화의 후유증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화운동에 대한 성찰과 함께 불교계에 청정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탄허스님은 1956년 4월 월정사에 오대산 수도원을 설립했다. 수도원은 왜곡 · 파행으로 흐르는 수행풍토를 선교쌍수의 교육으로 바로잡으려는 교육결사로 평가받고 있다. 김광식 박사가 탄허스님의 열반 18주기를 맞아 완성한 '오대산 수도원과 탄허스님' 제하의 글을 발췌해 소개한다.



◇탄허스님

또 그 자격을 대교 졸업자, 또는 육경(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오기) 수료자, 대학졸업자로 했다. 일정한 지적 수준을 갖춘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이들을 잘 교육시켜 불교계의 지도자급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승속 불문으로 했고 비구니스님 뿐 아니라 재가 여성도 동참했다. 다양한 공부법을 거친 대상자를 교육시켜 승려로 출가시키겠다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다. 실제로 재가불자로서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1~2년후 거의가 출가의 길을 걸었다.

수도원 명칭앞에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차원 불사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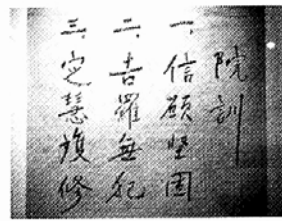
●수도원 설립배경과 대상자 1955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에 오대산수도원의 '수도생 모집(승속 불문)' 광고가 실렸다. 이 시기는 그 해 8월 12일 전국승려대회 개최, 종권 인수, 집행부 선출 등 전국적으로 이어진 사찰 인수작업이 일어난 때이다. 불교의 비구족이 도량은 대거 확보하였지만 이를 맡아 운영할 청정한 스님이 부족했다. 이러한 때 탄허스님은 정화운동의 모순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종단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수도원 설립으로 관철시켰다. 다양한 교육내용과 5년의 기간을 설정한 오대산 수도원은 명칭 앞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붙

새벽부터 밤중까지 좌선 · 논강 · 율력 등 심없는 교육일정

●수도생의 교육과정 생존스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교육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 드린후 좌선, 공양, 논강 수강, 종식, 예 복습, 등사, 율력, 청소, 저녁예불, 좌선, 자유학습, 취침 등 엄격하게 짜여져 실시됐다. 또 영가집 농업경 기신론 화엄경 등 불교학은 물론이고 노자 장자 주역 등 동양철학을 배웠으며 수도생중에 중국어 독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에 의한 외국어 특강도 있었다. 대부분의 강의를 탄허스님이 맡았는데 스님은 이때의 강의를 토대로 하여



◇오대산 수도원에서는 승속을 불문한 인재들이 모여 탄허스님 지도하에 공부했다. 재가불자들은 1~2년후 거의가 출가했다.



◇탄허스님이 직접 짓고 쓴 원훈.

후일 <화엄경합론> 등 각 경전의 번역과 출판에 했다고 한다. 또 토요일 오후에는 '순강(巡講)'이라 하여 외국어 뿐 아니라 문화, 헌법개론, 사회 경험 등 다양한 특강도 준비되었다.

●수도원의 원훈 수도원의 원훈은 '신원견고(信願堅固) 길라무범(吉羅無犯) 정혜쌍수(定慧雙修)'로 이는 수도원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적 지표다. 신원견고는 불교에 대한 믿음이 투철하고 원을 확고히 세우라는 의미이고 길라무범은 계율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정혜쌍수는 정과 혜를 균등히 지켜 선수를 통해 나타난 지혜를 실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산물이다. ●수도원의 해체와 재기 수도원 해체의 결정적인 요인은 비구 대처 갈등이 월정사에서 재연되어 대처측에서 월정사 주지를 상

대로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수도생들의 경비 일체를 사찰에서 대고 있었는데 당시 월정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해 도저히 운영해 나가기 힘들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탄허스님은 1958년 가을, 수도원을 비교적 재정이 넉넉했던 삼척 영은사로 옮겨 재건을 꾀하게 된다. 영은사에서 교육결사는 별 무리없이 3년을 채웠다. 수도생들은 불교 경전은 물론 유교경전까지 깊이 섭렵했다.

탄허스님 대부분 강의 · 율 · 론 등 불교외 외국어 · 동양철학 특강

오대산과 영은사 수도원에서 공부한 인물들은 조계종 종정 해인스님, 문학평론가로 유명했던 김운학스님, 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배도원스님, 직지사 조실 녹원스님, 월정사 시은스님, 금강선원장 해거스님, 운문사승가대학장 명성스님, 만화, 법해, 법등, 해공, 소요, 초연, 일관, 인상 스님, 아동문학가 박용일 씨 등이다.

이경숙 기자 glee@buddhapa.com



◇21일 첫 상임위원회회의를 가진 태고종제도개혁위원회.

태고종 제도개혁 이번엔 성공할까

'개혁위' 출범 첫 회의 태고종이 종단의 총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종단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법정)'를 출범시켰다. 개혁위는 21일 첫 상임위원회회의를 갖고 향후 제도개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혁위는 비합리적인 종헌종법 등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분담금 징수, 기구조직, 교육과 계율, 의제, 법제 등도 재정비하는 등 대체적인 골격을 잡고 세부안에 대한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혁위원회에는 종회의원 전원과 각 교구에서 3명씩 1백명이 동참한다. 또한 대표기구인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를 거쳐 각계에서 수렴된 개혁안이 수시 논의되고 공청회를 거쳐 조정된 안을 오는 11월 정기총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태고종은 지난 95년에도 종단의 총체적인 발전을 모색할 종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개혁안을 제출해 중앙총회에서 통과까지 시킨 전례가 있다. 당시도 태고종은 '마지막이라는 위기감'으로 종단을 침체에서 구할 전방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였지만 일부 종진, 원로들의 거부감과 개혁을 주도할 당시 집행부가 97년 좌초하는 바람에 결국 발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 전례 때문에 이번 태고종의 제도개혁 시도를 보는 교계의 시각은 회의적인 면도 없지 않다. 우선 개혁을 주도할 집행부가 얼마만큼 종도들의 신뢰도를 얻고 있는 가 하는 점이다. 현 집행부는 아직 완전한 화합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단분규의 양극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순천 로얄호텔에서 열린 80회 종회가 무효'라는 사정 원과의 입장차도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개혁을 이끌어가는 주체의 성향도 모호하다. 상임위원회의가 매주 2번씩 열리기로 되어 있지만 여러 계파의 대표 구성원들이 고루 참여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수파의 입김이 강할 때 젊은 세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참신한 개혁안의 도출과 수렴이 과연 될지 의문이다. 개혁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화합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일부 기득권자들의 주도 아래 일방적으로 강행될 때 지난번과 같은 불발탄이 되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개혁불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태고종이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 제대로 된 개혁을 실시할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지는 전적으로 태고종도들의 관심과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이경숙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인쇄인: 김규석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www.buddhapa.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mahamall.co.kr 불교소품: '마하몰'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3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397 구독신청: '배달의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양분돼 있는 조계종의 두 신도회 통합이 진통을 겪고 있다. 통합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통합논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15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나, 중앙신도회는 25일 현재까지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신도회는 중앙신도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55 동수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전국신도회 명칭 존속, 양측의 일원 전원 사임 등을 조건으로 통합논의를 벌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신도회는 이와는 전혀 다른 입장

중앙신도회 전국신도회

통합논의 진통

원칙공감 방법엔 이견

이다. 최 연 사무총장은 "전국신도회가 제시한 한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통합하는 방법은 전국신도회가 자신해산하고 중앙신도회로 오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조계종 종법상의 신도단체인

중앙신도회와 유명무실한 전국신도회가 전국신도회 주장대로 55 동수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조직의 무게상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새 임원 선출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전국신도회측의 조건은 비합리적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신도회는 신도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가불교가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신도회로의 흡수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국신도회는 이번엔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합논의는 계속해 진행 방침임을 내비치고 있어 통합 가능성이 전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명우 기자

통일정토로 이끄는 큰 수레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창립 1주년 기념 통일토론회

귀의삼보하옵고

그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성원해 주신 스님들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종단 스님들과 불자들이 그리고 내외의 여러 뜻있는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창립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민족을 통일정토로 이끄는 큰 수레의 역할을 다하고자 남북교류 및 통일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불교의 사상적인 이론 모색과 불교 역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통일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불기 2545(2001)년 6월 8일(금) 오후 2시 - 6시 장소 한국일보사 송현클럽(본관 13층) 메인홀 주제 불교의 평화 정신과 남북화해

토론회 일정

◆ 개회식 및 기초발제

- 총재 격려사 : 정대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 본부장 인사말 : 정련스님

◆ 기초발제

- 학담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장)

"불교사상에서 전환의 논리와 평화통일"

주제발제 및 토론

사회자 : 서진영 (고려대 교수)

발제 · 박영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 김광식 (21세기 한국연구소장) "한반도 평화와 불교의 역할"

지정 토론

- 권혁범 (대전대 교수) · 김근식 (아태평화재단 책임연구원) · 고유환 (동국대 교수) · 김광용 (한양대 교수)

문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전화 : 02-720-0531 팩스 : 02-720-0532 관심 있는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회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교육원 · 포교원, 통일부, 불교신문, 불교방송, btn